

빌런 회사 설정 썬 풀었던 거

주로 리스크 관리 회사(개인일 경우 리스크 관리 인력)로 자칭.

흥신소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과 여타 존재들의 약점(아무리 비윤리적이고 비열한 것이더라도)을 찾아내고 정보로 거래하고 직접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대상의 가족을 인질로 잡거나 뇌물로 거래, 저주로 협박, 사는 터를 오염시키는 등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약점을 잡은 초인적인 존재를 동원하여 다른 초인적인 존재를 굴복시키거나 거래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초인적인 존재로부터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무궁무진한 만큼 회사의 수가 무수히 많고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하여 폐업시키더라도 끝없이 다시 생긴다.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수단에 도가 튼 만큼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초인적인 존재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국가에서 비밀리에 이러한 회사나 인재를 어용으로 고용하기도 하고, 국가 정보기관에서 직접 이러한 회사와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한다.

상대하는 존재가 신령스럽거나 사특한 경우 또한 있다보니 액을 대신 받을 액받이, 저주를 대신 걸어줄 피고용인 등을 항상 마련하여 회사에 두는 편이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다수의 회사가 액받이를 한계까지 이용한 후 감당이 어려울 만큼 위험한 기운을 품게 되면 처분해버린다. 또다른 초인적 존재에게 제물로 바치거나 여타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적한 곳에 묻거나 버림으로써 시일이 지나면서 그 지역에 불온한 사건이 생기기도 한다. 이에 대처해야 하는 지역의 도사들은 해결하느라 욕을 보아 대체로 회사 이미지가 좋지 않다.

하지만 이는 도사들 사이의 인식으로, 초인적 존재에게 느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프로파간다에 동의하는 여론도 높다.

대표적인 회사: 감람橄欖(상류사회와 연줄이 끈끈한 대기업)

---

감람橄欖